

2024.10.07.(월) 증권사리포트

삼성전자

3분기, 아쉬운 비용 통제

[출처] IBK투자증권 김운호 애널리스트

24년 3분기, 이전 전망치 하회

삼성전자의 2024년 3분기 매출액은 2024년 2분기 대비 8.7% 증가한 80.55조원으로 예상된다. 이전 전망 대비 감소한 규모이다. VD/가전을 제외한 전 사업부 매출액이 24년 2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DS는 가격 상승과 물량 증가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하고, 디스플레이는 고객 신제품 물량 효과가 기대되고, MX는 신제품 효과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삼성전자의 2024년 3분기 영업이익은 2024년 2분기 대비 2.7% 감소한 10.16조원으로 예상된다. 이전 전망 대비 감소한 규모이다. 가장 큰 변수는 DS사업부 일회성 비용과 원/달러 환율 하락이다.

3분기 DS: 흐림, 디스플레이: 맑음, 모바일: 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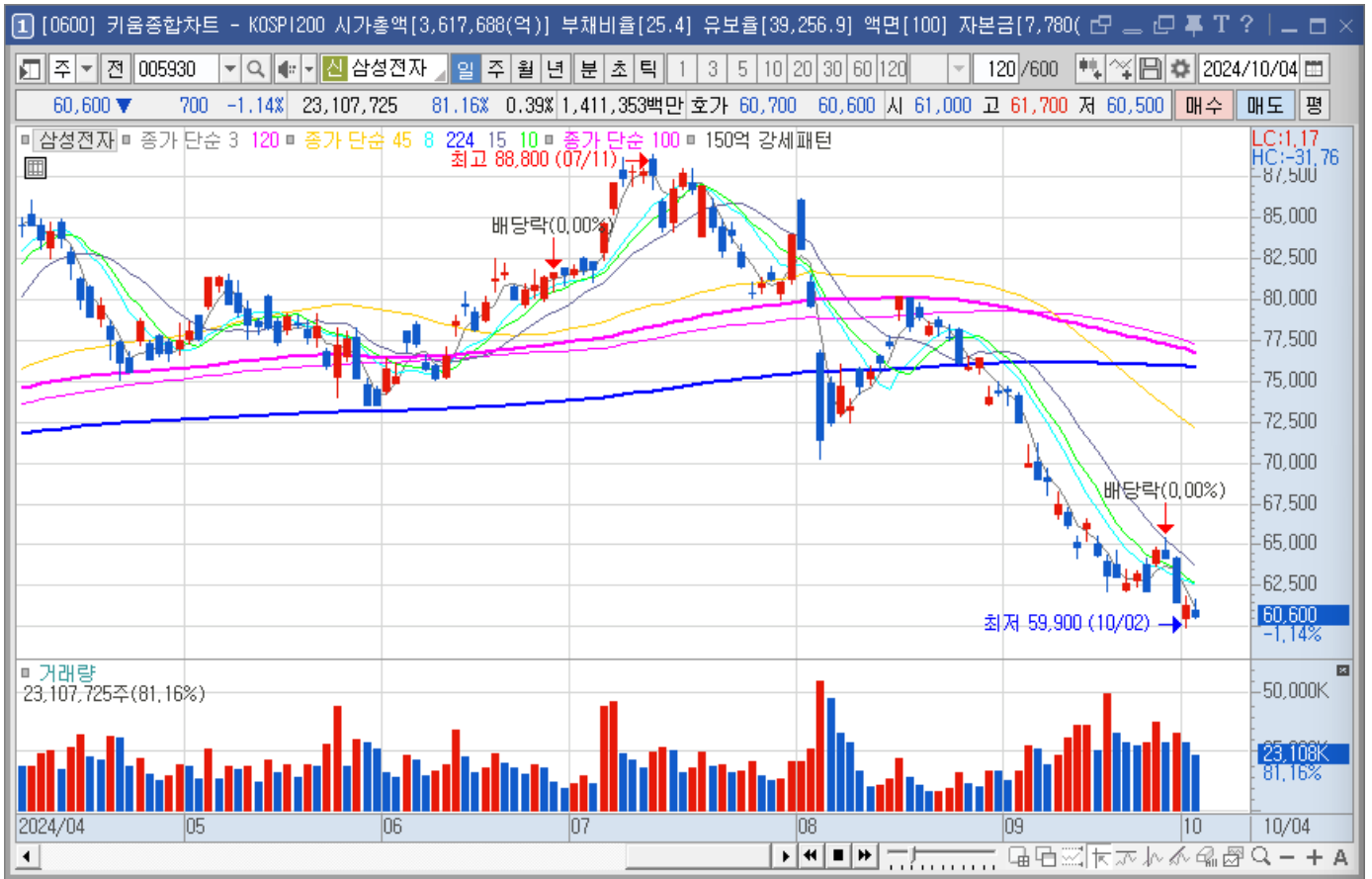
삼성전자의 2024년 3분기 영업이익은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2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DS 사업부는 범용 제품에 대한 ASP 상승이 이전 전망에 비해서 부진한 점, HBM3e 물량이 예상 대비 부진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디스플레이는 해외 고객의 신제품 영향으로 2분기 대비 실적이 개선되는 방향은 예상대로이지만 IT OLED 부진이 예상 밖의 변수이다. 모바일은 비용 절감을 통해서 이전 전망 대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95,000원으로 하향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한다. 이는 3분기 영업이익은 일회성 비용으로 성장세가 주춤하지만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4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부진했던 NAND 수익성도 가격 반등으로 빠르게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최근 주가는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를 지나치게 반영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목표주가는 95,00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 (단위:십억원) | 2022 | 2023 | 2024F | 2025F | 2026F |
|-----------|---------|---------|---------|---------|---------|
| 매출액 | 302,231 | 258,935 | 306,754 | 329,925 | 377,287 |
| 영업이익 | 43,377 | 6,567 | 38,520 | 48,315 | 64,943 |
| 세전이익 | 46,440 | 11,006 | 43,617 | 54,193 | 70,779 |
| 지배주주순이익 | 54,730 | 14,473 | 35,804 | 44,530 | 58,104 |
| EPS(원) | 8,057 | 2,131 | 5,271 | 6,556 | 8,554 |
| 증가율(%) | 39.5 | -73.6 | 147.4 | 24.4 | 30.5 |
| 영업이익률(%) | 14.4 | 2.5 | 12.6 | 14.6 | 17.2 |
| 순이익률(%) | 18.4 | 6.0 | 12.1 | 14.0 | 16.0 |
| ROE(%) | 17.1 | 4.1 | 9.7 | 11.2 | 13.6 |
| PER | 6.9 | 36.8 | 11.7 | 9.4 | 7.2 |
| PBR | 1.1 | 1.5 | 1.1 | 1.0 | 0.9 |
| EV/EBITDA | 3.4 | 10.0 | 4.3 | 3.7 | 2.7 |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삼성바이오로직스

3Q24Pre : 마일스톤만 없을 뿐

[출처] 유안타증권 하현수 애널리스트

3Q24Pre: 마일스톤만 없을 뿐

3Q24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883억원(+5.3% YoY, -5.9% QoQ), 영업이익 2,934억원(-7.9% YoY, -32.5% QoQ, OPM 27.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마일스톤 등의 1회성 이익이 부재하면서 영업 이익은 낮아질 전망. 오피비즈(아일리아 시밀러)가 CHMP의 승인 권고를 획득함에 따라 연내 유럽 허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마일스톤도 연내 수령 가능할 것으로 기대.

바이오로직스 별도로 매출액 9,365억원(+6.1% YoY, +15.6% QoQ), 영업이익 3,859억원(+1.1% YoY, +17.2% QoQ, OPM 41.2%)로 전망. 3Q부터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동을 시작한 4공장 18만 리터 시설의 본격적인 매출 기여와 높은 원달러 환율 지속 영향.

CDO 플랫폼 확장 계속

9월 BPI 2024에서 동사는 CDO 플랫폼인 S-AfuCHO와 S-OptiCharge를 공개. S-AfuCHO는 fucose를 제거한 항체 개발 플랫폼으로 ADCC를 높여, 항암 면역 반응을 강화한 항체 개발 가능. S-OptiCharge는 단백질의 전하 변이를 조절함으로써 고품질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동사는 현재까지 8개의 CDO 항체 생산 플랫폼을 공개했으며 CMC 패키지 제공 서비스로 SelecTailor를 출시하며 CMO 사업뿐 아니라 CDO 사업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는 중. 생물 보안법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장기적으로 WUXI Bio 등 중국 CDO 기업들 활용이 어려워질 것을 보임에 따라 동사 수혜 기대. 또한 금리가 낮아지면서 바이오테크들의 자금 조달도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임상 개발 파이프라인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전망. ADC, BsAb 등 항체 기반 모달리티들의 긍정적인 임상 결과도 관련 모달리티 개발을 확대와 임상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매수 의견 및 목표 주가 115만원 유지

Quarterly earning Forecasts

(십억원, %)

| | 3Q24E | 전년동기대비 | 전분기대비 | 컨센서스 | 컨센서스대비 |
|------------|-------|----------|-----------|-------|----------|
| 매출액 | 1,088 | 5.3 | -5.9 | 1,084 | 0.4 |
| 영업이익 | 293 | -7.9 | -32.5 | 305 | -3.7 |
| 세전계속사업이익 | 300 | -5.2 | -35.5 | 319 | -6.0 |
| 지배순이익 | 225 | -6.2 | -29.1 | 245 | -8.1 |
| 영업이익률 (%) | 27.0 | -3.8 %pt | -10.6 %pt | 28.1 | -1.1 %pt |
| 지배순이익률 (%) | 20.7 | -2.5 %pt | -6.8 %pt | 22.6 | -1.9 %pt |

자료: 유안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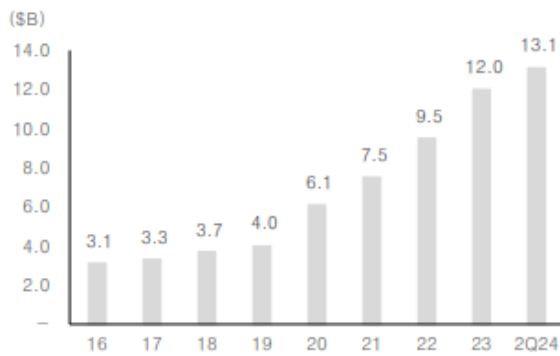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십억원, 원, %, 배)

| 결산 (12월) | 2022A | 2023A | 2024F | 2025F |
|-----------|-------|-------|-------|-------|
| 매출액 | 3,001 | 3,695 | 4,490 | 5,389 |
| 영업이익 | 984 | 1,114 | 1,365 | 1,645 |
| 지배순이익 | 798 | 858 | 1,044 | 1,279 |
| PER | 72.2 | 63.2 | 66.6 | 54.3 |
| PBR | 6.5 | 5.5 | 6.4 | 5.7 |
| EV/EBITDA | 44.0 | 33.7 | 35.0 | 30.2 |
| ROE | 11.4 | 9.1 | 10.1 | 1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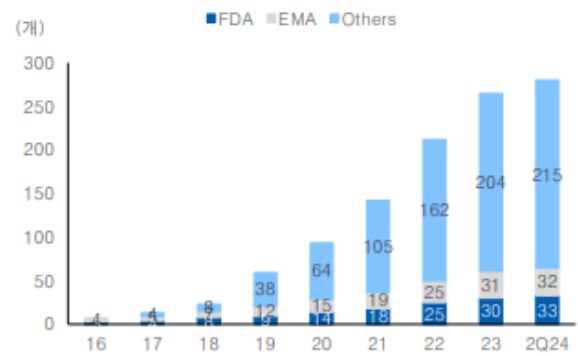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주 현황(누적)



자료: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지역별 CMO 승인 현황(누적)



자료: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CJ제일제당

3Q24 Pre : 국내 가공 부진 아쉬워

[출처] 하나증권 심은주 애널리스트

3Q24 Pre: 아쉬운 국내

3분기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7조 4,018억원(YoY -0.6%), 4,370억원(YoY 10.4%)으로 전망한다. 물류 제외한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4조 5,388억원(YoY -2.9%), 3,070억원(YoY 11.5%)으로 추정한다. 시장 기대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① 국내 가공 매출은 YoY 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정한다. 전반적인 소비 둔화가 부담이다. 부진한 탑라인 및 추석 대목을 앞둔 일부 제품 판촉 기인해 마진도 YoY 소폭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 해외 가공 매출은 YoY 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주 매출은 YoY 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카테고리의 점유율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긍정적이다. 다만, 중국 지상취 매각 역기저 및 일본 부진이 이를 소폭 상쇄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바이오 사업부는 라이신을 포함한 주요 아미노산 스팟 가격이 하방을 잡으며 2분기와 유사한 흐름이 예상된다. 900억원 내외 이익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 ④ 생물자원(FeedCare)은 흑자기조가 이어지겠다. 베트남 돈가 회복에 기인한다.

4분기 기대 요인 점검

3분기 국내 가공 실적 분위기는 다소 아쉽다. 그러나 쿠팡과의 거래 재개 효과가 4분기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주를 중심으로 한 해외의 견조한 영업활동은 긍정적이다. 미국 내 주요 카테고리의 점유율 우상향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지상취 역기저도 해소될 전망이다. 4분기는 미주의 견조한 성장세가 전사 성장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이오 실적도 연말 갈수록 긍정적이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감안시 외식 산업 회복에 따른 핵심 판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 더불어 미국 항만 파업에 따른 해상운임 강세는 경쟁사 대비 원가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주가 큰 폭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매력 보유

단기 고점 대비 주가는 27% 조정 받았다. 현 주가는 12개월 Fwd PER 8배에 거래 중으로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다. 단기 실적 모멘텀 둔화는 아쉽지만 4분기는 영업환경을 3분기 대비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원익QnC

메모리 수요 감소로 하반기 미미한 실적 전망

[출처] BNK투자증권 이민희 애널리스트

메모리 수요 감소로 하반기 미미한 매출 전망

메모리 수요 감소로 하반기 동사 연결 매출액은 3Q24 2,338억원(flat QoQ), 4Q24 2,300억원(-2%QoQ)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수익성 높고 매출 기준 최대 고객인 북미 식각장비업체로부터의 주문은 여전히 강하며(대만, 중국 수출호조 영향), 4Q24부터 고객사 내 동사 점유율 상승도 기대되어 퀵츠웨어 매출은 양호할 전망이다. 연결기준 영업이익률은 3Q24 15.6%(flat QoQ), 4Q24 8.4%(성과급 지급 영향)로 예상되며, 2024년 연간 OPM은 13.7%(3.4%pt YoY)로 전망한다. 한편 대만 신설법인의 경우 3Q24말부터 완전 가동, 감가상각비가 반영될 전망이며, 의미있는 매출 기여는 2H25 이후로 예상된다.

세라믹파우더가 견인하는 모멘티브 실적 성장, 하반기는 불확실

반도체, 방산 등에 공급되는 세라믹파우더 제품(영업이익 기여도가 70% 이상 차지)이 작년부터 자회사 모멘티브의 실적 성장을 견인해 왔으며, 동사 연결 실적 영향도 가장 크다. 하반기도 상반기와 비슷한 실적을 기대하고는 있으나, 최근 반도체 수요 및 매크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7월 실적이 정점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목표주가 33,000원으로 하향 조정, 투자의견 '매수'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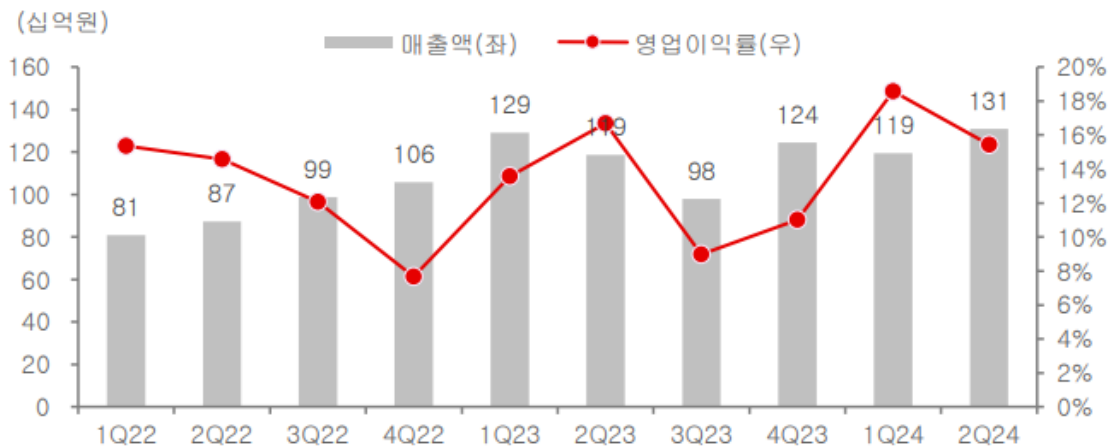
메모리 Down-cycle 진입과 지난 6월에 주가 Valuation 고점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여, 목표주가를 33,000원(mid-cycle P/B 1.8x 적용)으로 하향 조정한다. 그러나 현재 주가는 역사적 Valuation 밴드 저점에 위치해 있으며, 글로벌 퀵츠시장 내 동사 경쟁력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Fig. 1: 원익QnC 연결재무제표 요약

| | 2022 | 2023 | 2024F | 2025F | 2026F |
|-----------|-------|-------|-------|-------|-------|
| 매출액(십억원) | 783 | 806 | 913 | 957 | 1,072 |
| 영업이익 | 115 | 83 | 125 | 129 | 151 |
| 세전이익 | 77 | 61 | 98 | 100 | 126 |
| 순이익[지배] | 54 | 38 | 56 | 58 | 72 |
| EPS(원) | 2,048 | 1,451 | 2,146 | 2,198 | 2,751 |
| 증감률(%) | -8.4 | -29.2 | 47.9 | 2.4 | 25.2 |
| PER(배) | 11.4 | 19.8 | 11.8 | 11.6 | 9.2 |
| PBR | 1.6 | 1.9 | 1.4 | 1.3 | 1.1 |
| EV/EBITDA | 7.0 | 9.7 | 6.5 | 6.0 | 5.1 |
| ROE(%) | 15.8 | 9.7 | 12.9 | 11.7 | 13.0 |
| 배당수익률 | 0.6 | 0.2 | 0.2 | 0.2 | 0.2 |

자료: 원익QnC, BNK투자증권 / 주:K-IFRS 연결

Fig. 2: 모멘티브 실적(외부 발표 기준) 추이



자료: 원익QnC, BNK투자증권



HDC현대산업개발

3Q24 Preview : 넘어지면 일어나면 된다

[출처] 유안타증권 장윤석 애널리스트

3Q24 영업이익, 컨센서스(644억원) -18% 하회 전망

3Q24 매출액 1.1조원(YoY +9%), 영업이익 524억원(YoY -16%)을 기록하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18% 하회할 전망. 준공이 도래한 일부 건축 현장에서 원가율 상승 요인이 발생했으며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도시정비사업 입찰 참여 관련 비용 증가와 자체사업장 미분양 물량에 대한 판매촉진비 투입에 따라 판매관리비가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 일부 주택 현장에서의 도급증액 체결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악화 요인이 우세했을 것으로 판단

11월 이후의 HDC현대산업개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아쉬운 3Q24 실적이 예상되나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주목. 우선,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총사업비 4.5조원 이상의 H1 프로젝트는 '24년 11월 분양과 착공이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실적 성장의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 또한, 동사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외주주택과 자체사업 부문의 원가율 악화 요인도 감지되지 않아 주택사업의 안정적인 실적 흐름도 지속 가능할 것. 반면, 금번 3Q24를 포함해 동사 실적에 불확실성으로 작용 중인 지식산업센터는 '24년 연내 준공되기 때문에 관련 우려 요인이 해소될 수 있을 전망

'24년 이후에도 매출 성장이 가능한 기업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기존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29,500원 유지. 동사 주가는 최근 1개월(10/2 기준) -18% 하락하며 건설업종 Peer 대비 낙폭이 큰 상황 [코스피200 건설 최근 1개월 수익률 -9%]. 그러나 동사가 H1 프로젝트를 위시한 자체사업을 통해 '24년 이후에도 매출과 이익 성장이 가능하다는 차별점을 고려하면 최근 급락은 과도하다고 판단

| | 3Q24E | 전년동기대비 | 전분기대비 | 컨센서스 | 컨센서스대비 |
|------------|-------|----------|----------|-------|----------|
| 매출액 | 1,126 | 9.0 | 3.6 | 1,099 | 2.5 |
| 영업이익 | 52 | -15.5 | -2.7 | 64 | -18.7 |
| 세전계속사업이익 | 62 | -24.7 | -1.6 | 75 | -17.5 |
| 지배순이익 | 46 | -26.7 | -3.8 | 54 | -15.3 |
| 영업이익률 (%) | 4.7 | -1.3 %pt | -0.3 %pt | 5.9 | -1.2 %pt |
| 지배순이익률 (%) | 4.0 | -2.0 %pt | -0.4 %pt | 4.9 | -0.9 %pt |

| 결산 (12월) | 2022A | 2023A | 2024F | 2025F |
|-----------|-------|-------|-------|-------|
| 매출액 | 3,298 | 4,191 | 4,440 | 4,592 |
| 영업이익 | 116 | 195 | 211 | 314 |
| 지배순이익 | 50 | 173 | 176 | 267 |
| PER | 17.4 | 4.4 | 8.1 | 5.3 |
| PBR | 0.3 | 0.2 | 0.4 | 0.4 |
| EV/EBITDA | 9.1 | 7.6 | 10.1 | 7.7 |
| ROE | 1.7 | 5.9 | 5.7 | 8.2 |



POSCO홀딩스

철강과 리튬 모두 가격 상승 예상

[출처] NH투자증권 이재광 애널리스트

중국 정부 부양책에 철강 가격 상승 기대

중국 인민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발표로 철강 수요 개선 기대. 기대처럼 중국 철강 수요 개선된다면 중국의 철강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철강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 8월까지 중국 부동산 착공 면적은 22.6%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철강 수출은 18.9% 증가, 국내 열연 유통가격은 연초대비 7.1% 하락한 상황

공급 제한으로 리튬 가격 상승 전망

글로벌 생산 비용(10~15달러/kg)을 감안하면 현재 리튬 가격(10달러/kg)은 향후 공급 증가를 억제할 것. 즉, 생산자들은 업계 비용 곡선의 상한선인 kg당 15달러 이상을 유지할 때까지 생산 능력 증가를 중단하고 확장 계획을 보류할 가능성 높음. 실제로 Albemarle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호주 Kemerton 리튬 가공 공장 건설 중단하고 생산을 중단할 계획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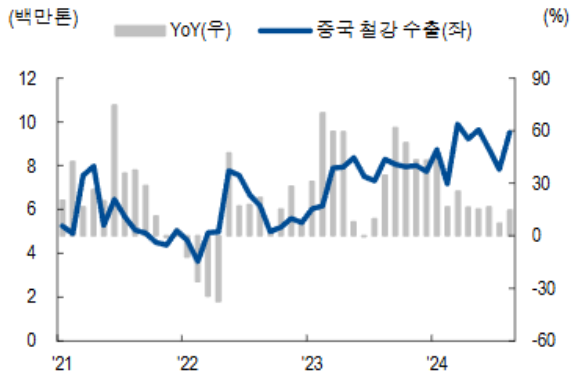
3Q24 Preview: 판매량 회복 및 밀마진 개선으로 전분기비 증가

POSCO 별도 기준 영업이익 약 5,000억원으로 전분기비 20% 증가 전망. 3분기 중 국내 열연 가격은 평균 톤당 2.2만원, 중국 열연 가격은 52달러 하락한 반면 제선원가는 47달러(철광석 12달러, 원료탄 39달러)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밀마진은 소폭 개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더불어 고로 개수 완료에 따른 판매량 회복(2분기 786만톤 → 3분기 850만톤 추정) 영향 때문

| | 2023 | 2024E | 2025F | 2026F |
|-----------|--------|--------|--------|--------|
| 매출액 | 77,127 | 74,390 | 76,663 | 76,663 |
| 증감률 | -9.0 | -3.5 | 3.1 | 0.0 |
| 영업이익 | 3,531 | 3,271 | 4,016 | 4,016 |
| 증감률 | -27.2 | -7.4 | 22.8 | 0.0 |
| 영업이익률 | 4.6 | 4.4 | 5.2 | 5.2 |
| (지배지분)순이익 | 1,698 | 2,303 | 2,555 | 2,555 |
| EPS | 20,079 | 27,492 | 30,925 | 30,925 |
| 증감률 | -44.9 | 36.9 | 12.5 | 0.0 |
| PER | 24.9 | 14.0 | 12.4 | 12.4 |
| PBR | 0.8 | 0.6 | 0.6 | 0.5 |
| EV/EBITDA | 7.5 | 5.9 | 5.3 | 5.2 |
| ROE | 3.2 | 4.2 | 4.5 | 4.4 |
| 부채비율 | 69.2 | 66.6 | 64.6 | 62.6 |
| 순차입금 | 7,646 | 9,294 | 11,038 | 11,88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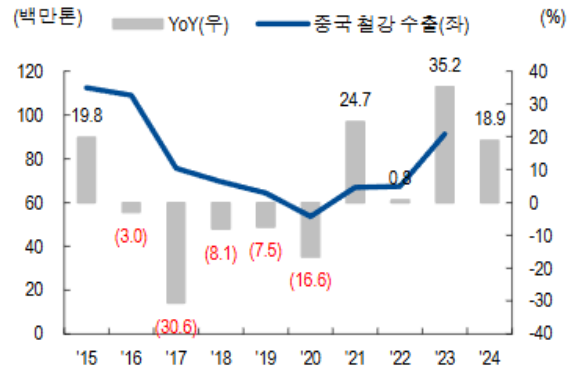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원, 배

그림3. 중국 철강 제품 월별 수출량



자료: CEIC,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중국 철강 제품 연도별 수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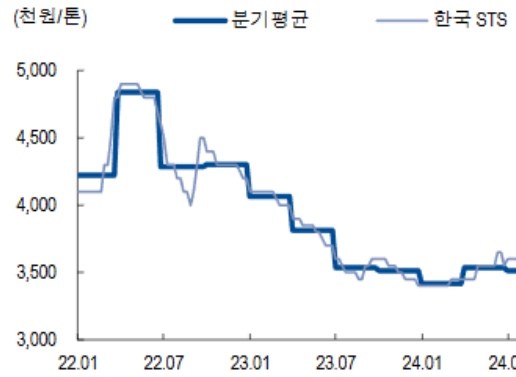
주: '24년은 8월 누적
자료: CEIC,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 열연 가격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 STS 가격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에스엠
 필요한 시기에 신인 성장이 나오고 있다
 [출처] 키움증권 이남수 애널리스트

3분기 영업이익 255억원, 컨센 하회

3분기 매출액 2,592억원(yoy -2.7%), 영업이익 255억원(yoy -49.5%, OPM 9.8%)을 전망한다. 글로벌 콘서트 부문이 개선되며 매출 하락은 두드러지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매출 프로젝트별 단위 수익성이 가장 높은 앨범이 전년 동기 890만장에서 50% 레벨로 감소해 영업이익 레버리지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별도 부문 영업이익률은 15.8%로 전년동기 25.4%대비 10%p 가량 하락할 것으로 판단한다.

필요한 시기에 신인 성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3분기에는 NCT 드림 435만장, NCT 104만장, 엑소 190만장, 라이즈 103만장 등 총 890만장의 앨범을 판매했다. NCT 127 멤버의 군입대, 개별 활동을 시작한 엑소 등 전년과 비교해 퍼포먼스 상위에 있는 보이그룹 활동성이 올해는 저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인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이다.

라이즈는 지난해 데뷔 앨범 104만장, 올 해 컴백 앨범 및 리패키지로 160만장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24년 2월 28만장 초동으로 데뷔한 NCT WISH는 7월 54만장, 9월 79만장 판매로 팬덤 성장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라이즈와 NCT WISH는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 활동하며, 앨범은 물론 공연 부문 확장에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한다.

세대 교체와 강점 영역에서의 Quality 강화

24년 1분기 NCT WISH, 2분기 naevis, 4분기 걸그룹 및 영국 보이그룹이 데뷔하고, 내년에는 신인 보이그룹을 런칭할 계획이다. 이는 NCT 127의 군백기 및 기존 고연차 보이그룹의 개별 활동에 따른 완전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주요 추진력이다. 고연차 그룹은 솔로 활동 및 아시아 및 일본 투어로 강점 영역에서 극대화 포인트를 찾고 있어 순조로운 세대 교체 양상을 띠 전망이다.

콘서트 비수기이기는 하지만 4분기에는 NCT 드림과 에스파의 앨범 실적 레버리지, 인센티브 안분 반영에 따른 일회성 제거 등으로 전년대비 개선을 예상한다. 하지만, 24년 전체적인 앨범 판매는 지난해 2,150만장에서 20% 감소한 1,730만장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반영 올해 및 내년 실적 추정치를 변경하며 투자의견 BUY는 유지하지만 목표주가는 99,000원으로 하향한다

투자지표

| (십억원, IFRS) | 2022 | 2023 | 2024F | 2025F |
|--------------|-------|-------|-------|---------|
| 매출액 | 850.8 | 961.1 | 993.0 | 1,089.3 |
| 영업이익 | 91.0 | 113.5 | 91.6 | 111.6 |
| EBITDA | 151.8 | 171.5 | 146.0 | 161.6 |
| 세전이익 | 116.9 | 118.9 | 103.1 | 124.7 |
| 순이익 | 82.0 | 82.7 | 64.9 | 87.6 |
| 지배주주지분순이익 | 80.0 | 87.3 | 68.5 | 92.5 |
| EPS(원) | 3,363 | 3,664 | 2,911 | 3,960 |
| 증감률(% YoY) | -40.7 | 8.9 | -20.5 | 36.0 |
| PER(배) | 22.8 | 25.1 | 23.0 | 16.9 |
| PBR(배) | 2.62 | 3.04 | 2.05 | 1.90 |
| EV/EBITDA(배) | 10.5 | 11.8 | 9.3 | 8.0 |
| 영업이익률(%) | 10.7 | 11.8 | 9.2 | 10.2 |
| ROE(%) | 12.2 | 12.3 | 9.2 | 11.7 |
| 순차입금비율(%) | -48.2 | -39.3 | -40.7 | -44.1 |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